

## 의미분석의 두 갈래

——특히 範疇化와 意味公準을 중심으로

李 廷 玫

자연언어의 의미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론에는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을 다양한 그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다. 認知(cognitive) 의미론, 原型(prototype) 의미론, 틀(frame) 의미론 등이 있는가 하면, 選別目錄(checklist) 의미론, 形式(formal) 의미론, 진리조건적 의미론, 모형 이론적(model-theoretic) 의미론, 가능 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 등 가지가지 이름의 의미론이 있다.<sup>1</sup>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의 의미론들 가운데 근래 크게 두 갈래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첫째 심리적인 측면의 분석 경향과 둘째 논리적(또는 數理的) 측면의 분석 경향이 그것이다. 이 두 경향은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인상을 주지만, 언어학의 의미론은 이 두 측면의 분석을 합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다.

몬태규 의미론으로 대표되는 논리적 입장은 模型(model)에 따른 문장의 진리치와 문장들 사이의 含意의 개념을 성격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입장은 合成性(compositionality)의 원리를 채택하여, 한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들(과 그 표현을 형성하는 통사규칙)의 의미들의 함수(function)라고 본다. 內包(intension)와 外延(extension)의 구별을 이용하나, 내포는 의미에 대한 集合論的 代用物일 뿐 직관적인 또는 心理的인 實體는 아니다. 이 입장에서는 形式的 또는 數學的 精密性, 一慣性 및 優雅性(elegance)에 관심을 갖고, 心理的過程이나 心理的 實在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편, 심리적 측면의 의미분석에서는 映像, 記憶, 知覺, 理解, 思考 등 認知(cognition)의 모든 부면을 통해서 의미를 다루려고 한다. 이 입장은 언어 의미의 체계를 순수히 ‘논리적’인 것으로나 순수히 ‘物理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언어 의미의 체계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갈래의 입장이 모두 필요할뿐더러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의미 현상을 다루어 나가야 될 것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Carlson의 분석을 끌어다 쓴 Dowty(1979:80~87)의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한 고찰을 살펴 보자.

(1) John discovered fleas on his dog for six weeks.

이 문장에서 discover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을 나타내는 for... 표현과 일차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똑 같은 벼룩이 아닌 새 벼룩들을 6주동안 몇 번이고 거듭해 찾아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해석의 논리구조를 보면,

<sup>1</sup> 이 가운데 ‘틀 의미론’, ‘선별목록 의미론’은 Fillmore(1975)등의 논문에 나타난 이름이다.

- (2)  $(\forall t: t \in \text{six weeks}) A_i(t, \text{BECOME}[\text{John knows that } (\forall x [R(x, f) \wedge x \text{ is on his dog}]]))$  (f는 fleas라는 종류, R=realizes)

인테, 여기서 한 時點 t에서 다음 시점으로 흐름에 따라 x의 값이 같은 종류지만 다른 개별적인 벡터들로 달라짐으로 해서 모순을 피하게 된다. 예컨대,  $t_{i-1}$  시점에서  $x_2$  벡터가 代入된 BECOME문장이 참이 아니던 것이  $t_i$ 시점에서 참이 되고  $t_i$ 시점에서  $x_1$ 벡터가 代入된 BECOME문장이 참이 아니던 것이  $t_{i+1}$ 시점에 가서 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논리구조다. 이는 진리와 指示를 통한 明示적인 의미분석이다. Carlson은 이와 같은 達成(achievement) 동사와 持續(durative) 부사의 분석에서 實現에 대한 變項을 묶는 존재양화사를 두는 것은 不定복수명사구의 의미 때문이 아니고 동사의 의미 때문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분석은 관사(不·不定 막론)가 없고, 복수표지마저 隨意的인 한국어에도 적용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Dowty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장(1)은 John이 6주간 동안 문자 그대로 매순간에 새 벡터를 만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매일 잠자리, 학교에, 또한 이틀씩 주말여행에 갔을 수 있고, 심지어 첫주와 마지막주의 한 두 주 동안은 여러 날 새 벡터를 못찾았을지라도 문장(1)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발화하는 데 연관된 필요충분한 빈도와 時區間들을 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부사류 for six weeks등에서 全稱 양화사로 定量된 순간들은 애매하게 표시되고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연관성 있는 心理의 순간들’과 같은 것이겠다. 그러나 이 순간들의 포착을 위한 연관성(relevance)의 문제가 좀더 규명되어 맥락과 관계된 현실에 대한 우리의 知覺방식이 밝혀지고 이에 맞는 記述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역이 심리학과 논리학이 부딪치는 곳이다.

논리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또 하나의 영역은 前提(presupposition)의 영역이다. 特定記述(definite description)에 포함된 존재를 含意(entailment)로 취급한 Russell에 반대한 Strawson은 먼저 ‘前提된’ 명제의 지위가 다른 含意된 명제나 단언의 지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느낌은 여러가지 언어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否定에 따른 결과가 함의 때와 전제 때가 다르고, 이를 形式에서 다루기 위해 진리치 공백 또는 3值논리가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제의 존재를 부정하나 그 현상들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만일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함축(implicature)이든 은유적 의미이든, 그 존재가 느껴지고 언어적 소통에 이바지 하는 한 여하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複文의 전제 投射문제가 Karttunen과 Peters(1979) 및 Gazdar(1979) 등에 의해 많은 진전을 보았으며, Stalnaker(1980)가 Gazdar의 투사문제 해결책을 충분히 평가하면서도 Gazdar가 전제 자체의 성격을 규정짓지 않고 ‘마치 잠재적 전제가 어휘부와 통사부에 의해 주어진 어떤 것’인 양 나아가고 있다고 치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론의 구성을 위해 때로 많은 것을 가정한 채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이 되게 하려면 사실을 파헤치고 이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

사실성 전제에도 동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regret 같은 동사는 그 보문의 사실성이 매우 강하게 전제되나 discover등의 보문으로 가면 사실성의 전제가 약화된다. know라는 동사도 regret보다는 전제가 약한데, 우리말의 ‘알다’는 보문에 목적격표지 ‘을’을 취하면 전제가 있고 방향표지 ‘-으로’를 취하면 전제가 없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認知에 관계된 동사의 전제가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regret등 동사의 전제보다는 약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심리학적 실험

을 통해서, 또는 통사상의 증거를 통해서 좀더 분명히 밝혀지고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라 진리치나 적정성 (felicity)의 부과문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따져야 할 것이다. 다분히 심리적인 데서 출발한 전제의 도입으로 엄밀한 二値논리가 흔들렸으며, Osgood(1971) 같은 심리학자는 전제를 ‘새로운 心理言語學的 개념’이라고 말하는가하면, 많은 認知心理學者가 이에 관해 심리학적 실험을 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경향이다.

이제 어휘의미에 관한 문제로 들어 가자. 몬태규의 의미규칙들은 기본어휘항목의 內包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들어 가는데 내포는 어떤 한 세계에서의 外延으로부터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체계에는 어휘의미에 대한 의의있는 취급이 없다. 다음 (3)과 같은 문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4)와 같은 내포언어 定式으로 번역된다.

(3) Every man talks.

(4)  $\forall x [\text{man}'(x) \rightarrow \text{talk}'(x)]$

이 정식은 주어진 指標에서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은 또한 말한다는 속성을 지닌다는 해석을 받는다. 여기서 비논리적 常項 ‘man’과 ‘talk’는 더 자세히 분석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서 각각 ‘man’과 ‘talk’으로 번역된다. 주어진 지표에서의 언어표현의 외연은 가정에 의해 주어지는 비논리적 기본표현의 내포들만 가지고 의미규칙들에 의해 귀환적으로(recursively) 정의된다.

그러나, 화자들은 어휘항목을 정의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 그 어휘항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기준이 Katz에 따르면 개념내용으로서의 의미자질일 수 있다. 그리고 語辭(term)의 내포 또한 그 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한편, Putnam은 외연이 개별적 화자의 심리적 상태로서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언어노동의 분업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논박한다. Putnam(1975)에 따르면, ‘금’, ‘물’과 같은 自然類(natural-kind)의 판별기준을 위해 우리는 화자들 가운데의 부분집합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라 한다. 우리말에서 ‘진달래’와 ‘철쭉’이 자주 쓰이나 도시에 서 자란 사람은 이 두가지 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 어사의 개념을 분명치 않게 애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언어의 동사, 연결사, 부정과 대부분의 명사들의 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Kripke의 이른바 ‘指示의 因果的 연쇄’를 통해 어사를 그 지시대상의 숨은 구조나 본질(과 그의 記述)을 미처 알지 못하면서도 指稱에 사용하게 된다. 더우기 사회의 집단적이며 객관적인 외연들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협동의 결과는 사회의 집단적인 심리적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문법이 전체로서 하는 일은 ‘두뇌상태들로 표시’될 수 있는 것으로 Whitaker(1976)와 같은 신경언어학자는 보고 있다.

한편, 어휘항목의 의미에는 범주화(categorization)라는 심리적인 과정이 꼭 관련되는데, Putnam자신도 自然類 語辭의 ‘固定型’(stereotype) 개념을 제의하고 있다. 그것은 그 어사와 연관된 관습적인 생각으로서 그 종류의 정상적인 구성원의 핵심적 자질들로 구성된다. Putnam에 있어서 그것은 修正가능성이 희박한 ‘意味標識’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관습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물’의 의미 표지는 ‘가공물’이 아닌 ‘自然類’, 또는 ‘액체’ 등이 되겠고, ‘물’의 고정형은 ‘無色の’, ‘투명한’, ‘맛없는’,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등이 되겠다. ‘물’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즉 물의 외연은  $H_2O$ 다. 고정형 속에 든

정보가 정확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국어의 ‘호랑이’의 고정형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이들의 외연이 같다 할지라도 특히 태도에 관계된 또는 연상적 자질들에 있어서, 영어의 ‘tiger’의 고정형과는 다를 수 있다.

通時的으로도 어사와 연관된 고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pen’의 예를 들면, 깃펜에서 철펜으로, 그리고 고정형의 변화에 따라 외연도 달라지게 되었다. ballpoint pen이 흔해져 종래의 철촉 pen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자 ‘pen’은 ballpoint pen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문화적)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Rosch, 1977; Mervis & Rosch, 1981 참조), 범주들, 특히 기본級(basic level)범주들은 恣意的이 아니다. 기본급은 抽象의 기본적인 계층적 層位를 가리키는데 예컨대, ‘가구’, ‘의자’, ‘안락의자’ 가운데서 ‘의자’의 급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과, 범주를 반영하는 心像과 그 밖에 범주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사한 운동신경 반응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이라고 말한다. 명칭이 짧다거나, 빈도가 더 잦다거나 또는 기본급 효과를 범에 있어 먼저 배우게 된다거나 하는 언어적 요인들 보다 知覺-認知의인 구조적 요인들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어느 層位가 기본적이나를 결정하는 基底的 原理들(최대의 범주간 변별력, 범주내 유사성 등)은 보편적이라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영역에 대해 기본적이라고 판정되는 특정한 급은 ‘그 영역의 文化的 의의와 개인의 전문성의 수준’의 함수로서 달라질 수 있겠다. ‘깊음’을 통해 특정대상들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범주들을 반영하는 映像(image)은 기억 속의 정보의 저장소 노릇을 하며, 저장된 명제관계로써 계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그 基底表示로부터 실험에 의해 그림에 가까운 실체로서 生成될 수 있다(Kosslyn, 1980).

더우기, 범주들은 ‘代表性的 정도 차이’에 의해 내면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반드시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점적인 색채들은 기본 색채범주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되며(Berlin & Kay, 1969), 여러가지 언어상의 범주들도 그러한 원형들과 정도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Ross, 1972; Lakoff, 1972). 더 나아가 우리는 조직상의 통일성을 지닌 관계개념들의 체계로서의 ‘틀’(frame)이나 (Fillmore, 1975 참조) 영상圖式的 階層을 필요로 할 것이다(Langacker, 1982 참조).

어휘적 형태소들은 Katz나 生成意味論者들이 한 것과 같이 좀더 原初的인 의미성분들로 분석, 분해될 수 있다. 표준이론에서는 어휘항목의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성분들이 어휘부의 항목의 의미자질들로 표시되었다가 의미해석에 쓰이게 된다.

추상적인 복합술어가 기저구조에 설정되고 변형규칙들에 의해 이에 대응되는 어휘항목에 맺어지는 방식이 생성의미론식이다. 한편, 논리적 의미론에서는 意味公準(meaning postulate)이 서로 다른 論理外的 어휘항목들 간의 어떤 논리적 含意관계를 보이기 위해 설정된다. 다음 예를 보자.

(5) ‘Jack이 bachelor이면, 그는 결혼해 있지 않다.’(not married) (Carnap, 1947)

(6) John은 bachelor다. Sylvia의 male relative 모두가 결혼했다(married). 그러므로, John은 Sylvia의 uncle이 아니다(Partee, 1978).

문장 (5)가 진리임을 보장하는 데에는 ‘bachelor’와 ‘married’와 같은 論理外的인 단어들의 의미가 관련되어 있으며<sup>2</sup>, 論證 (6)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bachelor’, ‘male’,

<sup>2</sup> 이 경우는 ‘Fido is black or Fido is not black’에서처럼 논리어만 알면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와 구별된다.

‘relative’, ‘married relative’, ‘married’ 및 ‘uncle’ 사이의 관계들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意味公準을 둘 수 있다.

$$(7) \forall x (Bx \rightarrow \sim Mx)$$

Katz는 의미공준 방식이 약간의 外延論的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Katz의 의미이론의 未熟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Katz & Nagel, 1974), Lakoff (1972)는 의미공준의 쓰임새에는 경험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휘분해의 장점들, 예컨대 일반성의 포착과 어휘항목의 구조적 요소를 밝힘으로써의 설명등을 의미공준에 통합시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Quine이 look for를 try to find로 분석한 데서도 암시되고 Dowty의 다음과 같은 의미공준에서 시도되었다.

$$(8) \Lambda \mathcal{P} \Lambda x \square [\text{'kill'} (x, \mathcal{P}) \rightarrow \mathcal{P} \{y \text{ [VP[P\{x\} CAUSE BECOME 'alive'(y)]}]\}]$$

Carnap은 애초에 의미공준의 原子述語와 관련된 어떠한 비교언어적인 또는 보편적인 개념들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논리학자들이 (자기네 체계를 위해) 어떠한 의미공준들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결정의 문제이고 사실에 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컨대, ‘black’과 ‘raven’(갈가마귀)에 해당되는 述語를 각각 ‘BI’와 ‘R’로 잡기로 할 때, ‘black’의 의미는 꽤 분명하지만, ‘raven’의 의미는 일상 언어에서 애매한 편이다. 그러나 內省이나 統計로 ‘raven’이 ‘black’을 늘 함의하는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다만 ‘R’과 ‘BI’를 자기 체계 안에서 논리적 함의관계를 맺어주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걱정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맺어준다고 가정하면  $\forall x (Rx \rightarrow BIx)$ 를 체계안에 공준으로 두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안 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Carnap이 생각한 의미공준은 체제내에서의 작용만 중요시하고 경험적 사실의 뒷받침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본다. 언어학의 의미론에서는 ‘kill’이 ‘CAUSE to BECOME NOT ALIVE’를 함의한다고 할 때 (생성의미론에서 처럼) 과연 전자가 후자를 함의하는지의 경험적 사실 자체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Katz & Nagel (1974)은 (5)와 같은 의미공준에서 ‘B’와 ‘M’이 각각 특정 자연언어인 영어의 단어 ‘bachelor’와 ‘married’의 생략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특정 언어에서 독립된 보편적인 추상 개념들의 이름의 생략으로 보아야 할지 Carnap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Carnap 자신은 전자의 해석을 의도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미해석의 模型理論의 방법의 확대로 어떤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의 진리조건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좀더 분명히 가리게 되었으며, 그러한 경우의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법이 Grice (1975)등에 의해 제의되고 Karttunen & Peters(1979)등에 의해 형식화되었다. 다음 문장 (7)에서 단어 even은 문장 (7)의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9) Even Bill likes Mary.

(10) Bill likes Mary.

그러므로, 진리조건적 의미면에서는 (7)과 (8)이 값이 같다. 그러나 (7)의 even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1) Other people besides Bill like Mary.

- (12) Of the peopel under consideration, Bill is the least likely to like Mary. (Karttunen & Peters, 1979 : 12)

따라서, even의 함축의미 even<sup>i</sup>의 의미공준( $\text{even}^i = \lambda \mathcal{P} \mathcal{Q} \mathcal{P} \{ \hat{y} [Vx[*\{x\} \wedge \neg[\forall x=y^v] \wedge Q\{x\}] \wedge \Lambda x[[*\{x\} \wedge \neg[\forall x=y^v]] \rightarrow \text{exceed}^e(\text{likelihood}^e(*Q\{x\}), \text{likelihood}^e(*Q\{y\}))]] \}$ )을 두고, 문장 (7)이나 또는 다음 문장 (11)의 함축표현(implicature expression, 여기서 Bill-likes-even-Mary<sup>i</sup>)의 부분에 넣는다.

- (13) Bill likes even Mary.

문장 (11)의 함축표현의 부분을 이루는 접속성분( $\text{even}^i(*\text{Mary}^e, \hat{x}_0 \text{ Bill-likes-him}_0^e)$ )이 얻어지고 의미공준에 따른 이의 同値의 표현( $[Vx[*\{x\} \wedge \neg[\forall x=m] \wedge \text{like}_{*}^e(b, \forall x)] \wedge \Lambda x[[*\{x\} \wedge \neg[\forall x=m]] \rightarrow \text{exceed}^e(\text{likelihood}^e(*\text{like}_{*}^e(b, x), \text{likelihood}^e(*\text{like}_{*}^e(b, m)))]]$ )이나와 형식화된 even의 함축의미(풀어서, There are other x under consideration besides Mary such that Bill likes x, and for all x under consideration besides Mary, the likelihood that Bill likes x is greater than the likelihood that Bill likes Mary)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진리조건적 의미가 아니면서도 어휘항목에 늘 따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 할 수 있는, 常例의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을 논리기호로 記述하는 가능성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두 갈래의 의미 분석의 경향이 만날 수 있음을 본다. 그리고 어휘적 의미와 명제적 의미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본다.

다음은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들의 문제를 잠깐 살펴기로 하자. 이 문제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피치 못하게 한다는 논의가 Partee (1979)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에서 내포문들은 서로 同値일지라도 代置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형식 의미론 쪽에 있다는 것이다.

- (14) Mary believes that P.

- (15) Mary believes that Q.

여기서 P와 Q가 同値라 할지라도 代置不可能한 것은 belief 맥락 때문인데, 여기 연관된 심리적 요인들은 화자에 따라 또 순간 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도의시할 수 없으면서도 다루기가 대단히 힘든 문제로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不可能한’ 가능세계의 문제(Hintikka, 1969, 1975; Cresswell, 1973)가 여러모로 탐구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화자의 꿈 세계(화자가 꿈꾸는 것과 맞아 들어가는 세계)내의 화자의 두 짝(counterpart)이 문제되고 交叉合一化(cross-identification)의 원리가 논의 된다.

- (16) I dreamt that I was Brigitte Bardot and that I kissed me. (Lakoff)

‘불가능한 세계’와 관련하여 모든 가능세계에서의 外延을 고려하지 말고 화자의 꿈 또는 Alice의 소망과 맞아 들어가는 모든 세계들의 집합에서의 外延을 고려하자는 제의가 있다. 그 밖에도 맥락 변항에 기반한 맥락 의존의 내포논리의 체계를 Hansser (1979)가 제의하고, Barwise가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을 탐구하여 위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두 갈래 경향이 부딪치는 영역은 많아 ‘知覺(perception)의 논리’가 있고 또 ‘映像(imagery)의 논리’도 논의되며(Kosslyn, 1981 참조), 話行과 관련된 명령, 질문, 믿음,

규범의 논리가 각각 발전하고 있다.

가능한 인간 언어의 의미론을 성격짓는 데에는 心理的인 制約이 필요하다. 경험과학으로서의 언어학적 의미론은 自足的인 形式體系 뿐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론도 자연언어만이 아닌 형식언어의 의미론까지를 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론의 준거를 속에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분석의 결과를 심리적인 제약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함께 우리의 의미론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이론을 명시성과 동시에 경험상의 바탕 위에서 평가하고 불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이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erlin, B. & P. Kay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nap, R. (1947) *Meaning and Necessity*, Chicago University Press.
- Dowty, D.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Reidel, Dordrecht.
- , R.E. Wall, and S. Peters (1981) *Introduction to Montague Semantics*, D. Reidel Publishing, Co., Dordrecht.
- Farkas, D., W.M. Jacobsen, and K.W. Todreys (1978)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the Lexic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 Fillmore, C.J. (1974) 'The Future of Semantics,' in R. Austerlitz, ed., *The Scope of American Linguistics: Papers of the First Golden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LSA Held at the U.M., Mass., Amherst*.
-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BLS* 1, 123-131, Berkeley Linguistic Society.
- Gazdar, G. (1979) *Pragmatics*, Academic Press, New York.
- Hausser, R.R. (1979) 'A Constructive Approach to Intensional Contexts,' mimeo., Stanford University
- Karttunen, L. & S.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in Choon-kyu Oh & David A. Dinneen, eds.,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 Academic Press, New York.
- Katz, J.J. & R.I. Nagel (1974) 'Meaning Postulates and Semantic Theory,' *Foundations of Language* 11.3.
- Kosslyn, S.M. (1981) *Image and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1972a)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in D. Davidson & G. Harman,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 Reidel Publishing Co., Dordrecht.
- (1972b)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LS* 8, Chicago Linguistic Society.
- Langacker, R.W. (1982) 'Space Grammar, Analysability, and the English Passive,' *Language* 58.1.

- Osgood, C.E. (1971) 'Where do Sentences Come from' in D.D. Steinberg and L.A. Jacobovits, ed.,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 Partee, B.H. (1979) 'Semantics-Mathematics or Psychology?' in R. Bauerle, U. Egli, and A. von Stechow, eds., *Semantic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Berlin, Springer-Verlag.
- (1978) *Fundamentals of Mathematics for Linguistics*, Greylock, Stanford, Conn.
-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K. Guderson, ed., *Language, Mind and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osch, E. (1977) 'Human Categorization,'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 Cultural Psychology* 1, Academic Press, London.
- Ross, J.R. (1972) 'The Category of Squish: Endstation Hauptwrot,' *CLS* 8.
- Stalnaker, R.C. (1980) 'Review of G. Gazdar (1979), *Pragmatics*,' *Language* 56.
- Whitaker, H. (1976) 'Is the Grammar in the Brain?' in D. Cohen, ed., *Explaining Linguistic Phenomena*, Wiley, New York.

151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접수: 1982. 6. 25)